

창립 20주년을 맞아 고 김진일 회장님을 생각하며

Revering the memory of late KIEF president Prof. Jin Il Kim



김진균 / 서울대 명예교수
Kim, Jin-Kyoon / Professor Emeritus, Seoul National University
E-mail: jinkkim@snu.ac.kr

한국교육시설학회 스므 번 째 생일을 맞으니 창립 멤버의 한사람인 필자는 큰 감회를 느낀다. 20년 전 학회 설립 당시 있었던 여러 일이 생각나지만 그 중에서도 작고하신 김진일 초대 회장님께서 초창기 학회를 위해 애쓰시던 모습이 각별하게 머리에 떠오른다. 돌이켜 보면 우리 학회가 오늘의 버젓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김회장님께서 학회를 위해 기우린 노력과 정성에 비롯한다 아니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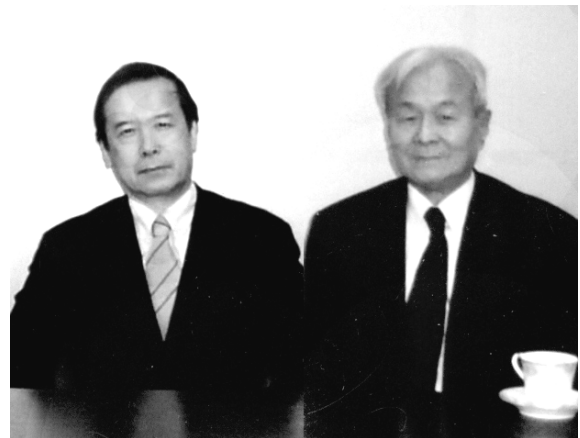
1993 여름 어느 날 필자는 회의 참석 차 강남에 있던 주택공사 본부에 갔는데, 그 자리에서 김회장을 뵈게 됐다. 물론 그 전에도 건축계 원로이신 회장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뵈 적은 있었지만 사적인 대화를 나눌 기회는 없었다. 회의를 마치고 현관을 나서는데 회장님께서 잠깐 보자고 하시며 교육시설학회 설립에 관한 이야기와 이에 결들여 필자도 참여할 것을 권하셨다. 이러한 말씀은 그 때 즉흥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시 소장교수 이던 필자를 새로운 학회를 위해 함께 일할 사람 중 하나로 미리 꼽고 계셨던 것 같았다. 그 즈음만 해도 건축학계는 타대학 교수들의 활동상황에 대해 잘 알 정도로 울타리가 넓지 않았던 시절이어서 회장님께서도 이미 필자의 신상을 파악하고 계셨던 듯 했다.

그 해 막바지에 여의도에 있는 사학연금회관에서 발기인 모임이 있었고 12월 27일에는 경기여고 강당에서 창립 총회를 가졌다. 학회 사무실은 당시 과학기술단체연합에 관계하고 계시던 회장님의 주선으로 과학기술회관 내에 방 한 칸을 쓰게 됐다. 초창기에는 사무실이 좁아 회의가 있을 때는 같은 건물 내의 대한건축학회 회의실을 이용했다. 추후 학회 활동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좀 더 넓은 곳으로 옮기게 된 것도 회장님께서 부지런히 발품을 파신 덕

분 이었다. 회의 공간을 갖춘 새 사무실로 이사한 후 ‘이제 됐다’며 흡족해 하시던 회장님의 모습이 떠오른다.

초창기 교육시설학회의 회원은 건축학 설계 교수들과 교육공학 전공 교수들, 교육부 산하 교육청의 공무원들이 주축 이었다. 한 때, 이질적인 분야의 구성원들 간의 견해 차로 운영상의 마찰이 일었던 일도 있었지만, 회장님께서 ‘학회는 학술단체다’라는 원칙으로 일관하시며 이를 무마하셨다. 필자는 회장님께서 끈은 심지로 단체를 통솔해 나가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그런가 하면 회장님께서 처음부터 학회지 발간에 많은 힘을 기우리셨다. 잡지형식의 학회지 ‘교육시설’ 발간을 위해 자주 편집회의가 소집됐다. 회지발간의 풍부한 경험을 갖추셨던 회장님께서 표지 디자인으로 부터 각 페이지 내용을 글자 하나하나 몸소 꼼꼼히 체크 하셨기 때문에, 필자를 포함한 편집위원들은 옆에서 손 놓고 구경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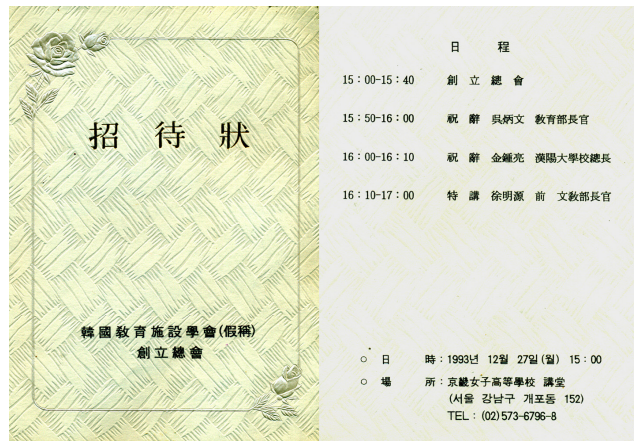
김진일 회장님(우측)과 필자

할 정도였다. 계간으로 시작된 잡지는 회장님의 독려로 얼마 안가서 격월간으로 격상됐고 차츰 학술 논문지의 모습을 갖춰 나갔다. 당시 잦았던 집행부의 모임은 가끔 중국 음식점 ‘만보장’ 만찬으로 호사를 누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사무실 인근의 분식센터 급의 식당에서 소박한 저녁식사로 끝나곤 했다. 이런 자리에서 종종 회장님께서 일제시대와 6.25동란 등 격변기에 겪으신 인생역정 대하드라마를 실감나게 들려주는 이야기꾼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내셨다.

필자가 회장직을 맡았던 시기(2000~2002)에는 사적인 자리에서 자주 회장님을 뵈게 되었다. 회장님께서 학회운영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날이면 새벽같이 전화를 주시며 만나자 하시고, 소찬을 들며 학회 발전에 관한 제안과 함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 즈음, 7차 교육과정이 가져온 새로운 시설 수요로 한해에 7,80건에 이르는 계획설계를 우리학회가 수탁하는 호황도 누렸다. 전국 건축학과 교수와 건축가들이 참여하는 연구및 성과 발표회 시스템이라든가, 이들 연구의 과실금을 적립하여 해마다 전국의 교육청 시설담당 공무원의 재교육을 시행하고 해외 교육시설을 견학시키는 공익사업 프로그램 등은 이런 자리에서 나온 회장님의 발상에서 구체화 되었다. 그런가 하면 회장님께서 대학 보직교수직이나 여타 학회장직을 맡았던 경험에서 습득하신 단체운영의 노하우도 들려 주셨다. 가끔 이야기가 옆길로 나가 주제가 다양해 질 때면, 필자는 회장님이 갖추신 역사에 대한 방대한 지식과 소상한 기억력에 감탄할 따름이었다. 이런 이야기들 중, 6.25 동란시 다부동 전투에서 총상을 입으신 박진감 넘치는 이야기는 가장 인상 깊은 것들 중의 하나다. 가끔 필자는 투철한 애국심과 달변의 회장님께서 군인이나 정치지도자의 길을 택하셨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다.

회장님이 기거 하시던 과천 자택은 늘 대문이 열려 있었고, 인사드리러 갈 때마다 인자하신 사모님께서 몸소 거실로 안내해 주셨다. 거실에 앉으면 소박한 가구와 벽에 걸린 모친의 초상 흑백사진 한 점이 청렴한 선비의 소박한 삶을 말해 주는 동시에 이산가족의 애환 같은 것을 생각하게 해 주었다. 아마도 필자의 원적지가 회장님의 고향인 함경도라 평소 말씀하시는 억양에서 친밀감을 느낀 터에, 또 언젠가는 필자의 이름이 북에 있던 회장님의 동생 이름과 같다고 하신 적이 있어서 더 그랬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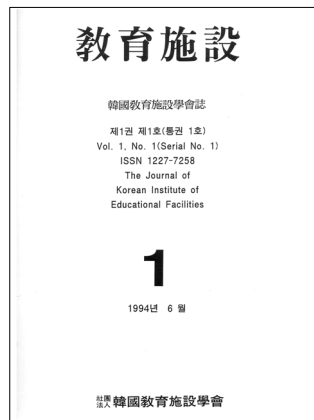
필자는 인생의 대 선배인 회장님으로 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이제 필자도 회장님께서 교육시설학회 활동에 한창이시던 연배에 이르렀다. 그 동안 필자는 외람되나마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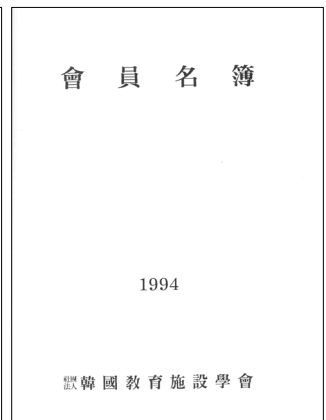
창립총회 초청장

분의 발자취를 따라 대한건축학회를 비롯한 몇몇 단체에서 대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 했다. 돌이켜 보면 이 모든 것이 회장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신 그분 ‘지도자 양성 코스(?)’의 개인교습 덕이 아닌가 한다.

때마다 보내오는 학회지 ‘교육시설’을 펼칠 때면 ‘남는 것은 오로지 학회지 하나 뿐’이라고 하시며 학회활동의 증거물로서 학회지의 중요성을 강조 하시던 고 김진일 회장님이 새삼 그리워진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20살의 어엿한 성년이 된 한국교육시설학회의 모습에 매우 대견해 하셨을 것이다.



1994 “교육시설” 창간호



1994 회원명부